

## 물류산업 체질개선과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질적 성장 실현 작지만 강한 조직 만들 터



박재역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박재역 대표이사를 제3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대기업만이 아닌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통합물류협회는 모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회장을 통해 업계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전 물류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박재역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재역 신임회장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를 이끌면서,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운송, 특수화물, 철강 및 철도운송, 항만하역사업, 자동차부품운송, 택배, 창고 등 물류 전 영역에서 물류정보화, 정시운송시스템 도입과 독보적인 조달물류 분야 개척 등 우리나라 물류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왔다.

3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재역 신임회장에 게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우선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다는 기쁨과 함께 우리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깊은 사명감과



▲ 한국통합물류협회 신입회장 기자간담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류산업에 종사한 지 30여년이 되었다는 박재억 회장은 사업체 경영에 전념하면서 늘 물류산업 전체를

위해 희생정신을 갖고 봉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할 때마다 늘 부끄러웠다고 토로한다.

현재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매우 저평가 받고 있는 물류산업.

박 회장은 “물류업계가 하나의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고 합심하여 나가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저평가 받는 이유라 생각한다”면서 “물류업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물류산업에 평생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고 회장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물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면서 통합물류협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억 회장은 물류관련 부처가 두 곳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나, 국가물류정책의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 수입사업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박 회장은 협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협회의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업계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회의 대표성 제고와 권한 확대를 통해 협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아직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벌크화물운송업체, 물류창고업등록 업체 등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물류관련 인증을 협회에서 일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등 행정권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물류산업, 물류기업, 물류종사자 모두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물류는 정부에서 자유 시장 논리만을 앞세워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다 보니 무질서한 시장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물류기업간에도 당장의 이익만을 앞세워 과당출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에서도 자유시장 논리만을 앞세우기보다는 물류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개입 및 최소한의 사업의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협회에서는 운송사업 면허제, 운송료 허가제 전환 등 정부가 통제·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컨테이너운송업, 택배업 등 업종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익 회장은 물류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과당출혈 경쟁과 파괴적 경영을 지양하고 물류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는 협회에서도 물류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피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물류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조정하고, 이익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자발적인 질서를 구현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유관기관 및 회원사들과의 만남의 장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회원사들 간에 소통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하고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도 전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현장밀착형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박 회장은 “협회 사무국의 전문성을 키워 물류업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협회에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재정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의 건전한 정책파트너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

관 협력의 강력한 협력체계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박재익 회장. 그는 통합물류협회를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물류단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물류산업의 체질개선과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질적 성장의 실현”으로 정했다.

물류인력 양성과 협회 위상강화를 위해 회원사를 확대하는 등 행정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